

지자체 · 기관별 민생경제 살리기 ‘온힘’

전북자치도, 시군 관계기관과 대책회의... 경제안정 위한 기관별 조치사항 논의
내수진작 위한 특별대책 추진 상황 점검 · 추진 과제 공유 · 적극 협조 당부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탄핵안 통과 이후 민생경기 회복의 초점을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7일 민생경제 살리기 시군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이후 민생경제 안정과 관련한 기관별 주요 조치사항을 논의하고 내수진작을 위한 특별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14개 시군과 지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전북지방중기청, 대한무역투자공사, 한국무역협회,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 등 10개 경제기관이 참여했다.

도는 20일 발표한 연말연시 및 비상시국 대응 4,000억원 규모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대책'의 추진방향과 추진과제에 대해 참석 기관과 공유하며 적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7일 민생경제 살리기 시군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이후 민생경제 안정과 관련한 기관별 주요 조치사항을 논의하고 내수진작을 위한 특별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진행했다.

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별대책에는 소상공인을 돕는 14개

분야 1,643억원 사업, 수출·자금난 기업의 숨통을 틔우는 20개 분야 1,168억원 사업, 소비촉진을 위한 12개 분야 148억원 사업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대책의 도민 체감도를 증진하기 위해 시군 차원의 특단의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 강화와 2025년 제1회 추경을 앞당기는 노력을 특히 당부했다.

또한 민생회복지원금 편성,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 신속 추진, 소비촉진 행사 조기 추진 등도 논의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안 그래도 힘든 경기에 비상계엄까지 겪으며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있어 민생 회복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며, “민생경제의 버팀목인 서민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내년도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해 현장까지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계기관 모두 세심하게 신경써 줄 것”을 전했다. /이만호 기자



오택필
〈도민안전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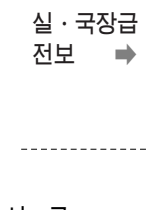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



이현서
〈정책기획관〉



송금현
〈환경신림국장〉



실·국장급
전보



김형우
〈건설교통국장〉



신원식
〈미래첨단산업국장〉



이성호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윤동욱
〈전주 부시장〉



김영민
〈군산 부시장〉



유호연
〈정읍 부시장〉



주영환
〈진안 부군수〉



최정일
〈무주 부군수〉



이진관
〈임실 부군수〉



김영식
〈고창 부군수〉



정화영
〈부안 부군수〉

도 어린이창의체험관, 디지털 윤리문화 조성 유공 장관 표창 수상



문화조성 유공 표창

디지털윤리 체험전시 운영... 올바른 디지털 이용 문화 확산 공로 인정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지난 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 디지털윤리대전'에서 디지털윤리문화 조성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체험 전시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디지털 환경에서 윤리

적 행동과 책임감을 교육하고, 올바른 디지털 이용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디지털윤리대전은 디지털 윤리 창작 콘텐츠 공모전 우수작 시상과 함께 디지털 문화 조성에 공헌한 개인, 기업, 단체, 공공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윤리적인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자

리로 꼽힌다.

이민숙 전북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장은 "이번 수상은 어린이들에게 디지털 환경에서의 윤리적 가치를 전하고자 노력해 온 결과라 더욱 뜻 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고 체험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올바른 디지털 이용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만호 기자

도, 비수도권 최초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운영 공모 선정

전북특별법 기반 지원 근거 마련 등... 외국인 창업지원 정책의 성과 인정

내년 1월 글로벌창업이민센터 개소 · 외국인 대상 창업 교육 프로그램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법무부 주관 '창업이민 인제양성 프로그램 지역센터 운영'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비수도권 최초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운영 지자체로 발돋움했다.

전북자치도는 내년 1월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담 운영기관으로서 외국

인 창업자에게 창업비자 취득 교육, 법인 설립 지원, 창업 정보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글로벌창업이민센터는 국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법인 설립, 지식재산권 취득 등 창업 필수요소를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전문 기관이다. 교육 이수자는

기술창업 비자(D-8-4) 취득 시 점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외국인 창업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공모 선정은 비수도권에서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지정을 목표로 다년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다.

전북자치도는 2023년 법무부와 외국

인 창업 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전북특별법(제65조)에 해외 우수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해 창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해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후속 지원 사업으로 글로벌 창업기업 8개사를 전북으로 이전·정착시키며 지역 창업 생태계를 크게 활성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만호 기자

도, 간부공무원 청렴리더십 교육 실시

김세신 청렴연수원장 초청 강연... 청탁금지법 ·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세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장을 초청해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 본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청렴리더십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발생한 일부 간부공무원의 비위 사건으로 흔들린 공직분위기를 쇄신하고, 공직자의 윤리적 책임 강화와 부패 없는 공직사회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김세신 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고위공직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주요 내용 및 실무적용 사례 등을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설명하며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전북자치도는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청렴정책조정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대내외적으로 청렴 의지를 확산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현장소통 패트론티'를 통해 갑질 근절을 위한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청력(淸力)업(U)'



책임관제'로 부패 취약 분야 관리에 힘쓰고 있다.

양충모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2024년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일부 공무원의 일탈로 종합청렴도 평가가 3등급에 머물러 아쉬운 상황"이라며, "이번 교육이 간부공무원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되새기고 청렴 의식을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도민의 신뢰를 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재난 심리지원 강화 위해 '머리 맞대'

전북자치도, 제4차 재난심리회복지원단 회의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7일 '2024년 제4차 재난심리회복지원단 회의'를 개최하며 도내 재난 심리지원 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를 겪는 도민들에게 안정된 심리지원과 초기 대응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 조직이다. 지원단은 대한적십자사, 정신건강복지센터, 교수, 전문심리상담사 등 재난 현장에서 활동 가능한 구조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음구호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방안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만족도 향상 방안 △2024년 도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특히, 효과적인 심리지원 프로그램 도입과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재난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과 일상 복귀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만호 기자

도 감사위원회, 감사원 자체감사 활동심사 '최우수'

광역자치단체 부문

전북특별자치도가 감사원이 주관한 '2024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77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이번 심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탁

월한 성과를 보이며 광역자치단체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평가에서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인프라 개선, 감사보고서 품질, 재무·제도 개선 등 감사성과, 내부통제 강화 노력, 적극행정·사전컨설팅 지원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24년부터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로 출범함으로써 감사기능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만호 기자

도, 내년 상반기 전보 인사 단행

실·국·과장급, 시·군 부단체장 등... 현안 추진 중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27일 2025년 상반기 실·국·과장급 및 시·군 부단체장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내년 1월 2일자로 단행된 이번 인사는 도정 혁신과 조직 안정화, 지역 현안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명단 15명〉

이에 따르면, 2급(실장급) 인사로 오택필 미래첨단산업국장이 도민안전실장으로, 김인태 전주 부시장이 기업유치지원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3급(국장급) 인사에서는 이현서 창업지원과장이 정책지원관, 송금현 정읍 부시장이 환경신림국장에 발탁됐다. 총무과(교육)에서 복귀하는 김형우 국장과 이성호 국장은 각각 건설교통국장과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이 된다.

신원식 군산 부시장은 미래첨단산업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종훈 정책기획관과, 박현숙 회계과

장은 총무과(교육)로 들어간다.

4급(과장급) 전보 인사는 총 40여명으로 이들 중 김철태 고창 부군수가 대변인직을 수행하게 됐으며, 이민숙 어린이창의체험관장이 행정정보과장에, 최영두 부안 부군수는 사회재난과장에 발탁됐다.

시군 부단체장 전보 인사도 단행됐다.

먼저,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전주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총무과(교육 과전)에서 복귀하는 김영민 전 안전정책과장은 군산 부시장에, 유호연 총무과장은 정읍 부시장에 발탁됐다.

주영환 대화협력과장은 진안 부군수, 최정환 도로공항공로과장은 무주 부군수, 이진관 관광산업과장은 임실 부군수, 김영식 일리리민생경제과장은 고창 부군수, 정화영 문화산업과장은 부안 부군수로 자리를 옮긴다.

/이만호 기자

도,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협의회 개최

지역 농식품산업 혁신 · 발전 위한 협력방안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가 동부권 6개 시군과 함께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 추진협의회'를 열고, 지역 농식품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7일 남원시 농촌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됐으며,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의 공무원과 사업단 관계자, 전문가 등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는 (주)다이어리알 이윤화 대표의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식문화 콘텐츠 개발' 특강으로 시작해, 진안의 K-홍삼 혁신플랫폼 구축과 장수의 농식품 스마트융복합타운 조성 등 구체적인 발굴 논의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각 시군별로 클러스터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과 대책을 공유하며 식품클러스터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올해 기준으로 114개의 기업을 육성하고, 연 매출 1,326억원, 원료 매입량 9,900톤을 기록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고용 창출 580여 명, 제품 개발 및 상품화 140건 등 다양한 성과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할 의견을 수렴하며,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전북도는 매 분기 추진협의회를 열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백승하 전북자치도 농식품산업과장은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은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동부권 식품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생산·가공·연구·개발·체험관광을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가치를 극대화해 도민과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